

2월의 육계전망

장민기
버들농원 대표, 본회 부회장

지난달 육계전망은 1월중에는 생산(공급)이 소비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여 1월 중순 이후에 물량체화현상이 나타나 닭값이 하락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 바로 그 시점에 사상 유래없는 최고 시세를 기록했었다.

이토록 예상밖의 호황이 있었던 것은 10월 하순 이후에 확산되기 시작한 질병 발생으로 인하여 수많은 닭들이 폐사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역관리를 철저히 실시한 농장에는 질병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고 평상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 바란다.

◎ 분석

① '88.12월 육계전기사료 대비 1월의 생산량은 약 7% 정도 적은 3만2천톤으로 추정된 것은 지난해 연

말경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수요가 급증했고, 1월초 연휴로 인한 생산감소를 감안하였다.

그러나 병아리 입추는 '88.12월 보다 1월에 입식된 병아리가 다소 많을 것이라는 경향을 몇가지 짚어보자.

가. 육용 병아리값이 계속 상승일로에 있어 종계노계 도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나. 육계값이 김장철 비수기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의외로 값이 좋았고 11월 보다 12월은 가격이 더욱 상승하여 입추의육이 최고조에 달해있다.

다. '88.11월 육계전기사료 3만2천톤을 소요로 할 만한 양의 병아리가 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닭값이 1,400원대를 상회하게 됨으로 해서 사료물량 증가에 대한 불안심리가 망각되어져 있는 것 같다.

② '89년도 봄철 육용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표 2와 같다.

'88.12월중 3만4천여톤의 육계전기사료가 소요되었다고 할 때 이를 토대로 산출한 병아리 입식숫자는 2천1백2십 만수에 달해 이 병아리들이 질병없이 잘 자랐다면 1월중·하순경 1,400원대의 시세는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2월초에는 구정대목이 있기 때문에 1월말의 닭값이 계속 유지되겠지만, 구정 직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로 수요공급의 균형이 깨져 닭값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질병발생이 감소되고 있어 3월중 출하될 닭부터는 정상적으로 육성출하될 것으로 보여진다. 1월중 육계전기사료 생산추이를 보면 생산이 소비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어 3월의 닭값은 크게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표 1. 10대 사료업체의 주간사료 생산량

기간	11				12					89.1		
	30~5	6~12	13~19	20~26	27~3	4~10	11~17	18~24	25~31	1~7	8~14	15~21
전기	2,624	2,519	2,423	2,854	3,462	3,712	3,041	2,676	3,312	1,541	2,295	2,550
후기	2,740	2,428	2,281	2,618	3,583	4,047	3,325	2,804	2,865	1,394	1,959	2,454
계	5,364	4,947	4,704	5,472	7,045	7,759	6,366	5,480	6,177	2,935	4,254	5,004
총계 88	1,301	1,538	1,440	1,357	1,577	1,470	1,463	1,487	1,665	1,100	1,199	1,398
총계 87	1,014	924	1,054	1,063	1,041	1,046	957	1,170	820	1,302	1,032	1,698